

index ETFs 헤지 자료조사1

🕒 작성일시	@2022년 7월 28일 오후 2:34
🕒 최종 편집일시	@2022년 7월 28일 오후 7:20
📄 문서 유형	hai stock
🔗 레퍼런스	

용어 정리

- 호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 시 부르는 가격을 매도 호가라고 하고, 매수 가격을 매수 호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 호가는 낮을 수록, 매수 호가는 높을 수록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호가의 종류

① 시장가 호가

시장가 호가란,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수량이 전량 충족될 때까지 가장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매체결되는 호가로서, **호가한 수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는 있으나 호가한 종목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가 호가

지정가 호가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합니다.

③ 최유리지정가 호가

최유리지정가 호가란, 시장가 호가처럼 호가할 때에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나 호가가 시장에 도달된 때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호가로서 시장가 호가와 지정가 호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④ 조건부지정가 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란,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호가로 매매거래에 참여하지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수량은 종가결정(장종료 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호가입니다.

⑤ 최우선지정가 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란,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평가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이 제출되므로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호가입니다.

인버스(곱버스) ETF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이유 - 이현열 퀀트 블로그

인버스(곱버스) ETF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이유 (feat. 시장미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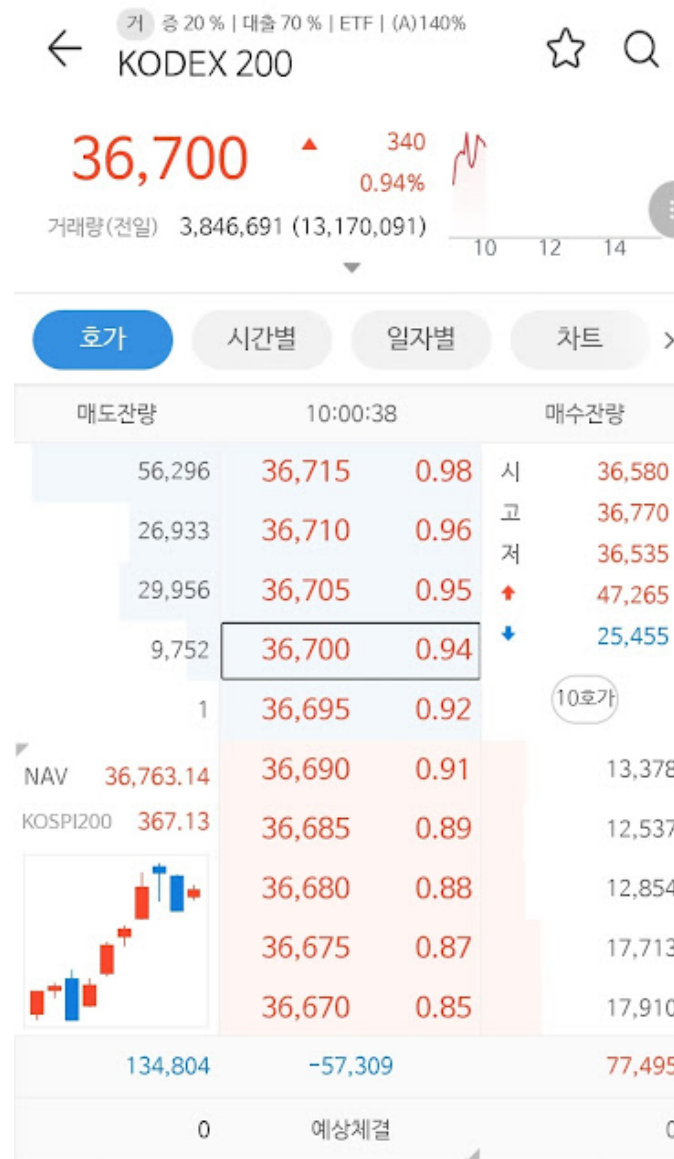
시장의 하락을 예상할 때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은 선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물 매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인버스(-X1) 혹은 곱버스(-X2) ETF를 이용해 하방에 베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ETF를 이용해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것은 호가와 스프레드로 인해 상방 베팅 ETF (X1 혹은 X2) 보다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힘

<http://henryquant.blogspot.com/2020/12/etf-feat.html#more>



시장의 하락을 예상할 때, 인버스 혹은 곱버스 ETF 를 이용해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것은 호가와 스프레드로 인해 상방 베팅 ETF 보다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각 기초지수와 ETF 틱 데이터를 이용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스피 200 지수 VS. KODEX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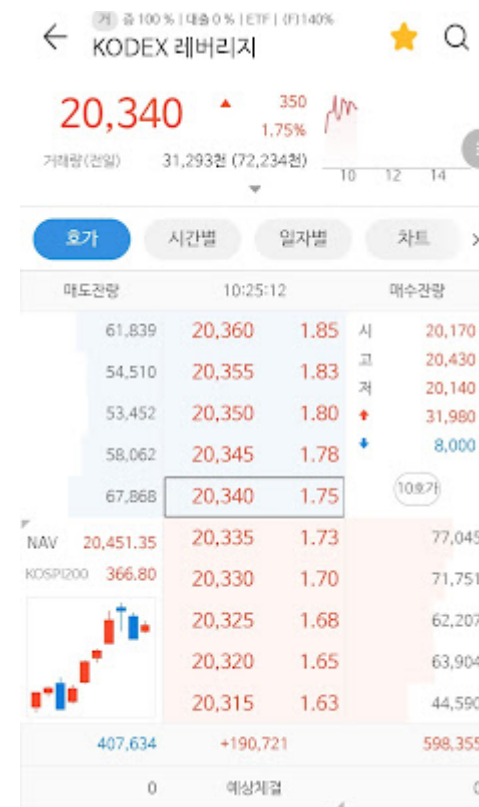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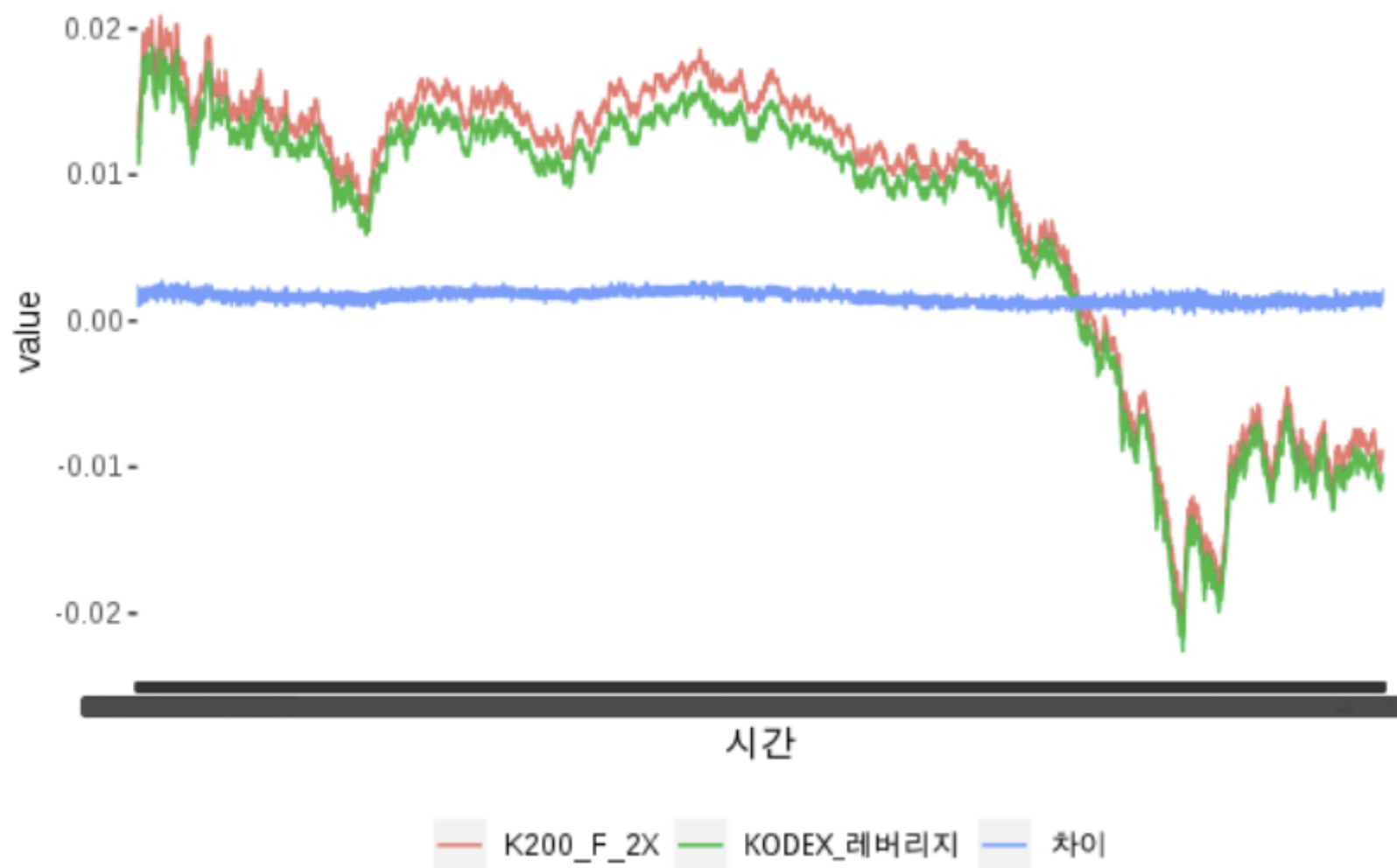


코스피 200 지수의 경우 틱 단위가 0.01 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호가당 스프레드가 1bp(0.01 %)도 안될 정도로 세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를 추종하는 KODEX 200 ETF 역시 호가당 스프레드가 1~2bp 정도로 촘촘하게 붙어있습니다.

일중 둘간의 수익률 차이 역시 거의 0에 가까운 정도로 붙어 있으며, 차이의 평균이 0.05%에 불과합니다.

2. 코스피 200 선물 지수 vs. KODEX 레버리지

이번에는 레버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레버리지 etf의 기초 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 x2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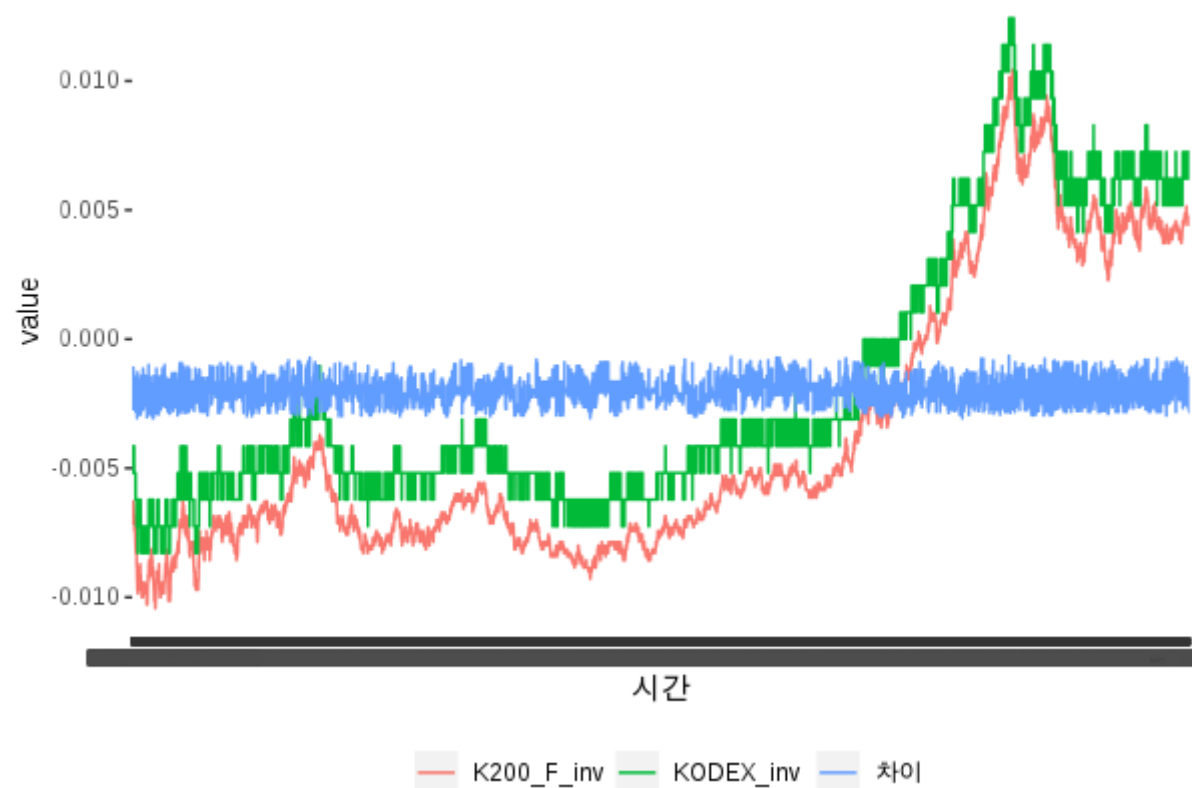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경우 틱 단위가 0.05 이며, 레버리지로 환산시 0.10 입니다. 호가당 스프레드로 환산시 2.7bp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역시 스프레드가 2~3 bp 로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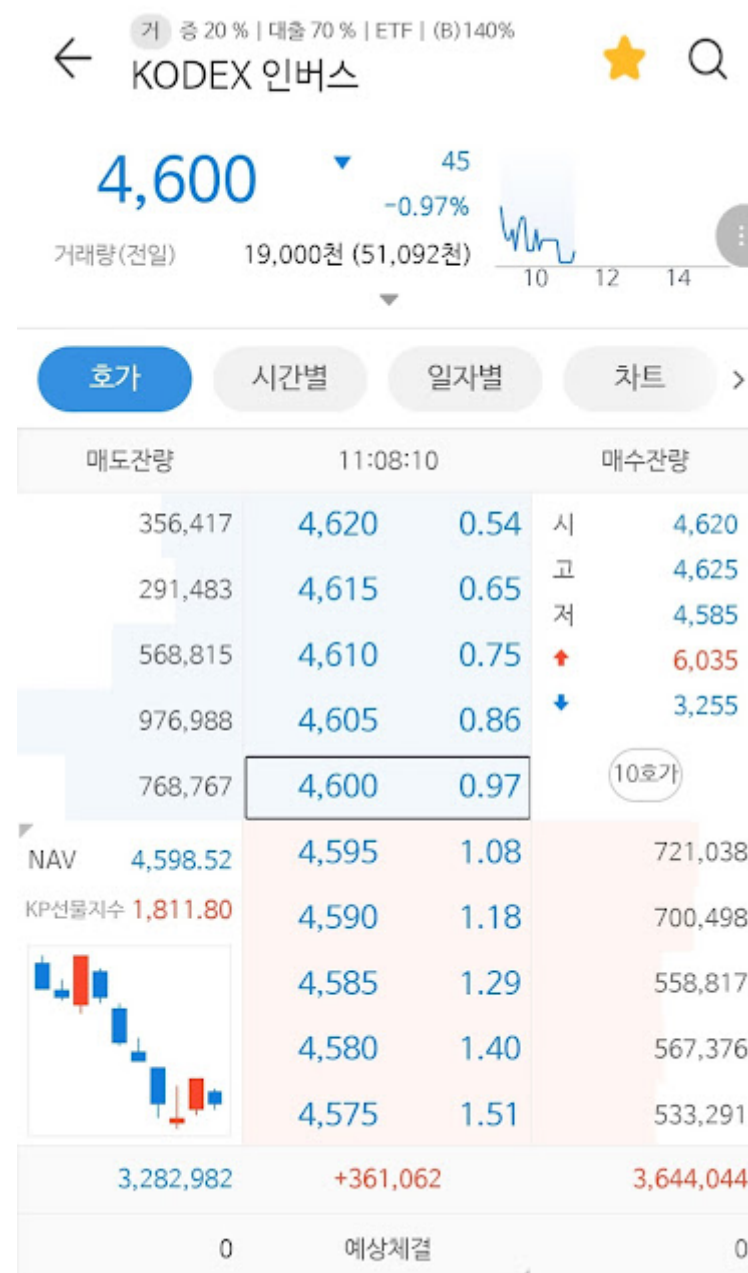
일 중 둘간의 수익률 차이 역시 거의 0.1%~0.2% 정도에 불과하며, 평균 차이 역시 0.163% 에 불과합니다. 수익률 움직임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코스피 200 선물 -1 배 vs. KODEX 인버스

이번에는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etf 차트가 기존처럼 매끄럽지 않고 뭔가 끊기는 느낌입니다. 소위 건반형 차트라고 합니다.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초지수가 빠지고 몇초가 지나서야 etf 가격이 변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초지수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etf 가격은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버스 etf 의 스프레드는 스프레드가 10bp 정도나 됩니다. 즉 선물에서 몇틱이 빠져야 etf의 가격이 변합니다. 이는 국내주식 호가 가격단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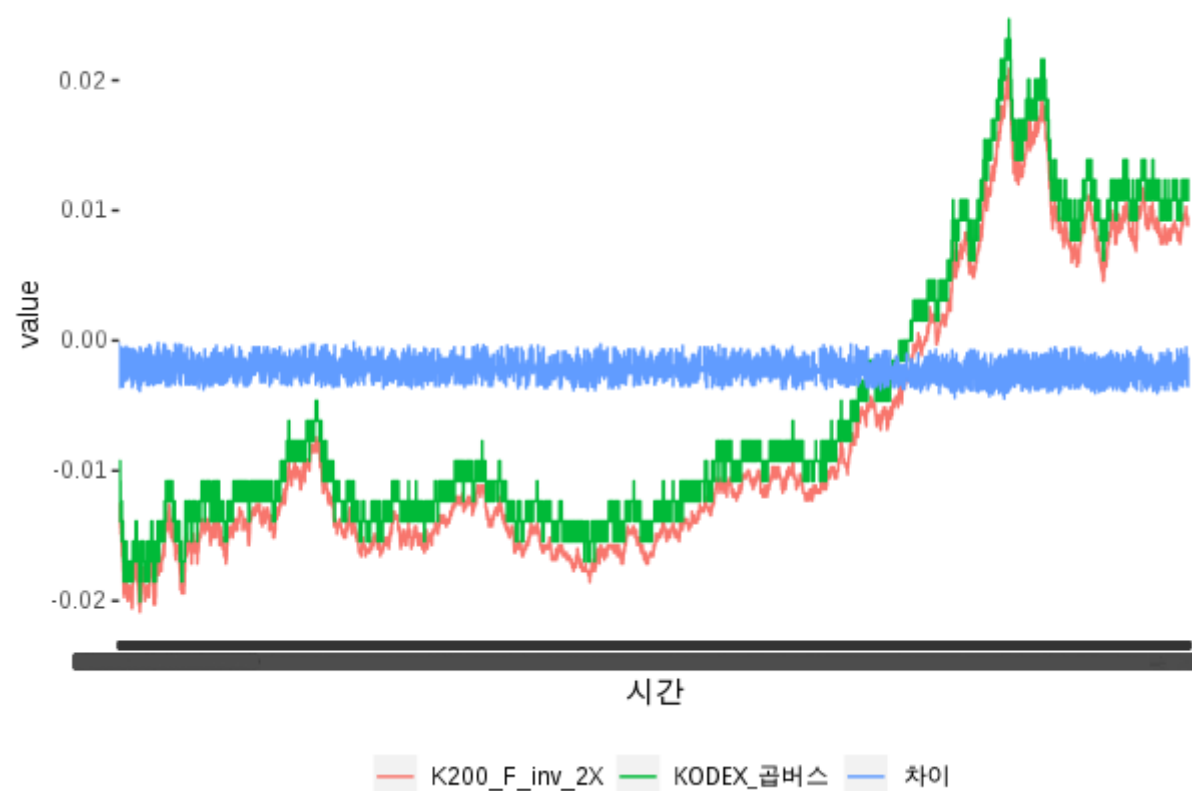
etf 의 호가단위는 가격에 상관없이 5원 입니다. 인버스의 etf 는 대략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0.1% 정도의 스프레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레버리지 etf의 경우 대략 20,000 원을 기준으로 하면 스프레드가 약 0.025% 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etf 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호가 스프레드는 낮게 되며, 인버스 etf 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10배 이상 올리지 않는 이상 이러한 스프레드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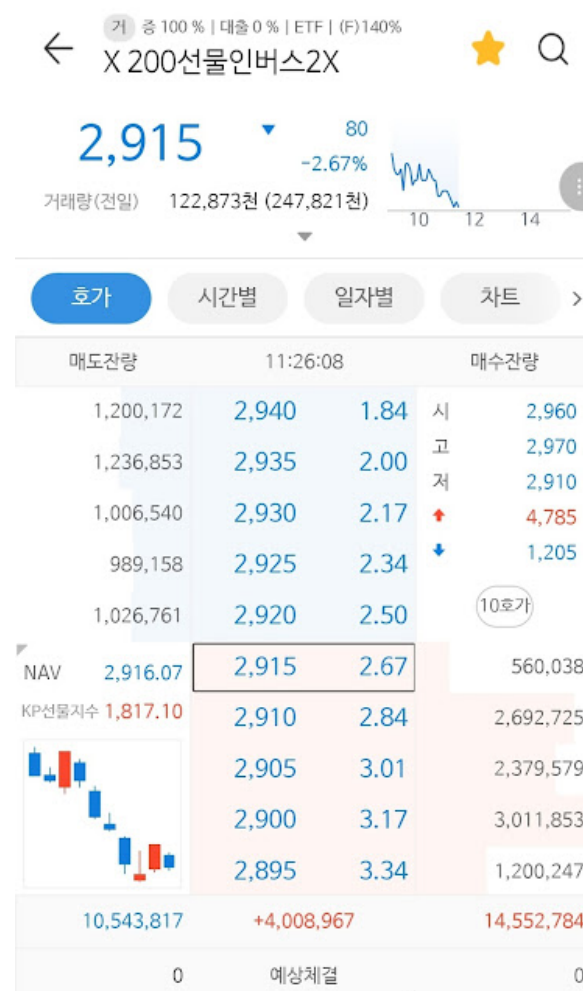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 인버스 etf 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 중 둘 간의 수익률 차이 역시 상승류 etf 보다 큼니다. 만일 시장가로 인버스 etf 를 사고 팔 경우, 벌써 스프레드로만 20bp 가 터지고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지정가로 주문을 대놓자니 기초지수인 선물에 몇 틱이나 움직이고 나서야 etf 가 한 틱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코스피 200 선물 -2배 vs. KODEX 선물 인버스 2x



역시나 etf 의 흐름이 끊기는 건반형 차트입니다.



호가당 스프레드가 무려 16~17bp 정도입니다. 이는 역시나 etf 의 가격이 너무 낮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호가당 스프레드가 2~3bp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단순히 방향이 반대임에 비해 그 스프레드의 차이는 너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지수와 etf 의 일중 차이 역시 큼니다. 만일 시장가로 매수-매도 를 하면 매매로만 벌써 30bp 가량 터지고 시작합니다. 1억을 투자 하면 30만원을 스프레드 비용으로 지불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정가 매매를 하자니 인버스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알아봐야할 것들

- 나스닥 시장 지수 추종, 인버스 가격 형성대 및 틱 단위 확인
- hedging strategy 알아보기.